

■ 2025년 지역예술도약지원 문학분야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 지역예술도약지원사업 (문학)
- 회의일시 : 2025년 5월 30일, 13:30- 15:30
- 회의장소 : 로앤로 (대학로 인근 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구효서, 김건형, 문태준, 송수연, 허연

지역예술도약사업은 지역 우수 문학작가의 중장기적 도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우선 광역문화재단이 해당 권역의 우수 작가를 추천하고, 출판사나 기획사가 추천작가와 접촉, 작가의 향후 작품 창작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 다양한 활동을 꾸린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업목적이 지역의 우수 작가가 해당 지역을 넘어 다양한 곳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경험이 작가의 작품 창작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인 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광역문화재단, 출판·기획사와 작가가 어우러져 모종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을 기대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심의위원들은 새로운 기획이 지역 작가와 지역의 문화예술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사업의 목적과 심의기준에 맞춰 엄정한 심의를 수행했다.(※추천작가 및 기획운영업체의 역량(40%), 사업계획의 타당성(30%), 지원사업의 기대효과(30%))

1차로 심의위원 개별 평가를 거친 후, 2차로 대면심사를 가졌다. 1차 심의에서 높은 평균 점수를 받은 사업 주체를 대상으로 개별 심사 과정에서 혹시 놓친 부분은 없는지, 심의위원 각자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점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지역예술도약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시도되는 사업으로, 지역문화재단과 추천작가, 출판사나 기획사가 최선의 지점에서 만나 좋은 사업을 기획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도, 신청단체들이 작가에 대한 성실한 연구로 작가의 도약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을 많이 제안해 주었다. 하지만 매칭 작가들의 여러 우수한 사업들 중 상위 등수 신청단체의 매칭사업을 우선 선정하는 사업 구조로 인해, 후순위 우수단체들의 사업이 몇몇 지원에서 제외되는 아쉬움도 있었다.

심사위원들은 상기의 여러 사항을 고려한 끝에 43개의 사업주체 중 13군데 총 26명의 작가를 선정했다. 올해의 경험을 기반으로 내년에는 더 많은 주체들의 보다 정교하고 창의적인 사업계획서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선정된 사업주체와 작가분들에게 응원을,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